

2024.1.26 (금)

주식 시황
Analyst 이수정
02. 6454-4893
sj_lee@meritz.co.kr

RA 이상현
02. 6454-4904
sanghyeon.lee@meritz.co.kr

코스피	+0.33%
코스닥	+1.64%
코스피200	+0.12%
Nikkei225	-1.34%
상해종합	+0.14%
항셱	-1.60%
S&P 500	+0.53%
Dow	+0.64%
NASDAQ	+0.18%

고니를 아냐구요?

1. 아시아 장중 NASDAQ 선물 하락에 연동되지 않고 낙폭과대주 위주 반등 성공. 이번주부터 KOSPI(+0.3%) 현물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3,749억원), 연기금(+375억원)에 투신(+362억원)과 사모펀드(+285억원) 가세. KOSDAQ(+1.6%)은 상위 몇몇 종목에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며 KOSPI 대비 상승폭 확대
2. 특히 Tesla -12% 급락을 무시한 2차전지 반발 매수가 인상적. 엔캠(+19%)은 원래도 강했으나 52주 신저가였던 LG에너지솔루션(+3.5%), 삼성SDI(+3.7%), 작년 밈 주식이었던 에코프로(+9.3%), 에코프로비엠(+7.5%), 금양(+6.5%), 포스코퓨처엠(+6.4%) 등이 오랜만에 장대 양봉으로 마감.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가이드언스를 통해 매출 YoY +Mid-single% 성장,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Capex, 45~50GWh 규모의 미국 IRA Tax Credit 수혜를 목표로 제시
3. 낙폭과대 벤치마크인 중국 증시 이중 바닥을 보면 한 번은 킬 수 있는 자리라는 공감대. 다만 Tesla 약세, 2차전지 전반의 실적 둔화라는 중력을 이겨내려면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엔캠 전핵) 혹은 국가가 허락한 마지막 마약 = KOSPI 이전상장, 액면분할, 무상증자 등이 필요함. 이전상장이라는 '마지막 한 발'의 가능성에서 KOSPI 기편입 중 목표보다 에코프로 형제들의 내러티브 우위
4.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HLB(+19%, 52주 신고가 경신). 이번주 시장과의 소통(1/24 장마감 후 IR, 25일 장중 NDR) 이후로 연속 급등. 간암 1차치료제로서 HLB 리보세라닙+중국항서제약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은 2023년 공 장 실사가 통과됐고(리보세라닙 8월, 캄렐리주맙 12월), 올해 3월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FDA 파이널 리뷰, 5 월 신약 허가를 기다리고 있음. HLB 역시 이전상장 안건이 12/21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돼 거래소 승인을 기다 리고 있음
5. 한편 미-중 바이오 분쟁에 Wuxi AppTec(603259 SH) -10%(하한가), WuXi Biologics(2269 HK) -18% 급락. 미 의회에서 특정 외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재평가하고 중단하는 법안 상정. 우려되는 생명 공학 관련기업에 야 오밍캉더(Wuxi Aptec) 명시.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 peer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간외 +1.6% 상승
6. 조선기자재 전문기업 현대힘스(+300%)는 KOSDAQ 상장 첫날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에 성공. 시가총액 1조 169억원, KOSDAQ 58위에 등극. 2008년 설립된 현대힘스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곡물류 제조가 주력 사업. 과거 모회사였던 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항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함. 현대중공업은 2019년 당시 대우조 선해양 인수를 위해 현대힘스, 현대중공업터보기계 등의 기자재 업체들을 매각. 현대중공업 직속 기자재 업체가 있 을 경우 인수 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물량까지 모두 가져갈 것이란 우려의 시각 때문
7. 공모 전 현대힘스의 최대 주주는 허큘리스홀딩스(지분율 75%), 2대 주주는 HD한국조선해양(25%). 공모 후지분 율은 허큘리스홀딩스 53.75%, HD한국조선해양 21.25%, 공모주주 22%. 조선업계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이 현대힘스를 되살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에 인수되고 한화오션으로 새출발했기에 HD현 대중공업이 현대힘스를 다시 인수해도 문제가 없음
8. 반도체 수급이 분산되며 업종 확산. 기계(HD현대인프라코어 +6.4%, HD현대건설기계 +5.4%), 건설(현대건설 +3.3%, DL이앤씨 +4.0%, HDC현대산업개발 +8.3%), 화학(+8.3%), 철강(세아제강지주 +5.0%, 동국제강 +6.0%), 6G(케이엠더블유 +9.5%), 초전도체(신성델타테크 +22%, 파워로직스 +22%), 카지노(파라다이스 +4.3%), 금융/주주환원(미래에셋증권 +7.6%, 대신증권 +3.7%, 유진투자증권 +3.7%, 하나금융지주 +2.5%), MSCI 편입 후보군(한진칼 +5.9%, 알테오젠 +4.1%)
9. 2/2 Vision Pro 출시를 앞두고 UEVR 재부각. 포켓몬스터+마인크래프트+젤다의 전설 시리즈를 합친 듯한 신작 게임, 팍월드(Palworld)가 1/19 Steam 출시 이후 최고 인기, 최다 플레이 게임으로 등극(뉴프렉스 상한가, 나무 가 +27%, 핏스 +25%, 롯데정보통신 +25%, 아센디오 +22%, 에스엔유 +21%, 센코 +17%, 엔피 +16%, 포바 이포 +14%, 라온시큐어 +13%). 갤럭시링 관련주 동반 강세(라온시큐어 +13%, 슈프리마에이치큐 +13%). Sam Altman 방한 현실화, AI 소프트웨어 테마도 반등(산돌 +18%, 이스트소프트 +16%, 컴퍼니케이 +14%, 한글과컴 퓨터 +5.3%). Microsoft의 업무용 메타버스인 Mesh 가상 회의 공간이 공식 출시되며 생성형AI(chatGPT) 테마 종목도 메타버스(Vision Pro)에 편입
10. Intel의 기대 이하 가이드언스에 2/21 Nvidia 실적 발표까지 반도체 소강 상태 염려. 다음주 월요일 퀄리티스반도체 3개월 보호예수 해제도 소소한 악재. 반도체에서 나온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며 시장 전체로는 마이너스가 아님. 엘앤에프 이전상장일 셀온이 2차전지 전반의 심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KOSDAQ 강세 지속 가능. 외국인과 연기금의 KOSPI 매수 지속 여부 관찰

52주 신고가/신저가					
종목명	종가(원) (12/5)	수익률 (1D)	시가총액 (십억원)	12MF PER(배)	12MF PBR(배)
메리츠금융지주	63,000	1.1%	12,812.4	5.5	1.20
HLB	65,200	19.2%	8,503.8	-	-
미래에셋증권	7,680	7.6%	4,648.8	9.0	0.40
CJ대한통운	136,000	4.9%	3,102.5	11.6	0.67
신성델타테크	89,500	22.1%	2,459.8	-	-
DGB금융지주	8,600	0.2%	1,454.7	3.0	0.22
종목명	종가(원) (12/5)	수익률 (1D)	시가총액 (십억원)	12MF PER(배)	12MF PBR(배)
LG이노텍	200,000	-3.4%	4,733.4	6.3	0.87
후성	8,640	-14.2%	815.2	81.5	2.34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거래량 급증 & 장대 양봉/음봉					
종목명	종가(원) (12/5)	수익률 (1D)	시가총액 (십억원)	12MF PER(배)	12MF PBR(배)
LG에너지솔루션	381,000	3.5%	89,154.0	36.1	3.86
삼성SDI	360,500	3.7%	24,789.6	11.4	1.15
에코프로비엠	244,000	7.5%	23,863.5	93.9	13.78
포스코퓨처엠	267,000	6.4%	20,682.7	76.2	7.38
에코프로	536,000	9.3%	14,272.4	36.5	7.57
SK이노베이션	115,800	3.3%	11,655.9	7.7	0.49
종목명	종가(원) (12/5)	수익률 (1D)	시가총액 (십억원)	12MF PER(배)	12MF PBR(배)
LG이노텍	200,000	-3.4%	4,733.4	6.3	0.87
이오테크닉스	180,000	-5.6%	2,217.5	30.2	3.47
솔브레인	283,500	-6.6%	2,205.2	14.6	2.13
코스맥스	124,100	-3.9%	1,408.5	11.9	1.85
심텍	35,700	-3.5%	1,137.2	14.6	1.85
두산테스나	48,000	-5.9%	816.3	13.5	2.14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